

“전복 양식 급증, 가격 폭락 가능성”

전복 양식시설이 늘어나면서 수년 후에는 전복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식 전복 생산량은 2002년 85t에서 2003년 1천 65t으로 12.5배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천49t에 달했다. 올해는 4천t에 달하는 양식 전복이 출하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전복 가격이 지난 해와 비교해 약보합세를

출하량 2002년엔 85t서 올해 4천t으로 확대

수산개발원 “시설 확대 등 낙관론 경계해야”

보일 것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은 예상했다. 또 앞으로도 매년 양식 전복 출하량이 증가해 전복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생산증가 폭

만큼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발원은 이어 “어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복 양식 시설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복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전복 양식은 지난 2000년 신안군 흑산도에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전국 어업 가구는 총 6만 988가구이며 완도군이 72.9%인 4만 4천 482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완도산 청정 다시마 드세요” 전남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다시마 수매를 위해 어민들이 수협 위탁장에 다시마를 쌓아놓고 있다. 다시마는 단백질 성분인 글루탐산과 아스파탐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웰빙 식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차의 달인들 한자리에’ 강진 월출산 다신제 성료

‘제 1회 월출산 다신제’가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월남정사에서 지난 24일 개최됐다. 차 풍작을 기원하고 강진 전통 차문화의 계승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이번 다신제에는 지허스님과 법현스님,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황주홍 강진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다신제와 헌다(獻茶), 2부 다음(茶飲) 순

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다신제는 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장이 사회를, 오도기 전 조선대 법정대학장이 집례를 맡았다. 다신제에 참석한 지허스님(순천 선암사)은 “9세기부터 이 땅에 들어온 차(茶)가 자생차로서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해방전까지 우리 정신문화를 지탱하고 가꾸 왔다”며 “이제는 차의

덕성을 배우고 전하는데 다인들이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출산 월남정사를 건립한 이효복 대표는 “월출산이 준 위대한 선물은 차(茶)”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강진 다도를 잇기 위해 다신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월남정사 일대에는 우리나라 최초 차 브랜드인 ‘금릉 월산차’와 ‘백운 옥관차’를 개발했던 ‘이한영 선생’의 분가 및 야생 차밭 20여만 평이 산재해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신설 고금면 버스 정류장은 내 땅에”

완도군의회 의장 요구... 주민 갈등 심화

완도군 고금면 소재지에 신설될 금호고속 정류장 위치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29일 완도 고금과 강진 마랑을 잇는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고금~광주행 고속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고금 군내버스 대표 김모씨는 금호고속 관계자들과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기존 군내버스 정류소가 적합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김 대표는 고금면 마을 이장 등 33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난 5일 기존 정류장에 버스 정류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완도군과 전남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고금면 소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완도군의회 김도 의장도 이에 따라 고금 군내버스 대표 김모씨는 금호고속 관계자들과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기존 군내버스 정류소가 적합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김 대표는 고금면 마을 이장 등 33

고 있다. 김 대표는 “연륙교 개통으로 이용 인구가 많은 황금노선이 없어지게 됐다”며 “기존 버스 정류장에서 100m 거리에 버스 정류소가 위치할 경우 대부분 노약자인 주민들이 짐을 들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도 의장은 “현 군내버스 정류장은 교통이 혼잡해 대형 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유소 위치로 버스정류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전남도에 진정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진도 조도면 가사도 주민 95%

“지산면으로 편입시켜 달라”

자체 주민투표... 郡에 행정구역 개편 건의서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산면 대신 행정구역 상 조도면에 속해 있어 너무 불편하다며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건의서를 진도군에 보냈다. 주민들은 “가사도에서 16km 떨어진 조도면 사무소와 농협 등에 갈 경우 배를 두 번 갈아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3.2km 거리인 지산면으로 행정

구역 편입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우편물도 조도면을 거쳐 가사도로 배달되기 때문에 1~2일 더 걸리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몇 차례 지산면 편입을 요청하기도 했던 주민들은 최근 ‘가사도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214가구 가운데 168 가구가 참여한 주민 투표에서 94.6%인 159 가구가 찬성했다. /진도=박현명기자 hypark@

장영대 추진위원장은 “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 대부분이 지산면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주민 의사를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행정구역을 바꿀 순 없고 조도면과 지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면서 “도서개발 사업비 배분 문제 등 주민 실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꼼꼼히 따져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명기자 hypark@

나주시민들은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나주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시청 공무원들이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정훈 시장을 겨냥해 꼬리를 물고 있는 고소·고발사태와 일부 핵심간부의 구속으로 드러난



법이라고 한다. 지역 유력 인사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정을 펼치려는 노력을 접어둔 채 서로 할뜰기에만 열중한다면, ‘혁신도시 건설’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나주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달이던 조직개편에 따른



해남 등대원, 파로스 앙상블 음악발표회 사회복지법인인 해남대원 원생들이 지난 23일 ‘파로스 앙상블 음악회’를 열고 스와니 강 등 10여곡을 연주했다. 원생들은 지난해 4월 한국 현악기 협회가 기증한 현악기와 플루트 등 악기 30여 점으로 1년간 기량을 연마해 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F1 특별법 제정·지역 주권 회복을”

영암 군민 5천여명 결의대회

영암군민들이 ‘포탈원(F1) 특별법’ 제정과 ‘영암 주권 회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영암군 체육회 등 군내 65개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가칭 ‘영암군사회단체연합회’ 회원 5천여명은 25일 오 후 실내체육관과 광장에 모여 ‘F1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영암주권 회복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각 지역 사회단체

임·직원과 노인회, 이장, 새마을지도자, 체육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고 영암 주권 회복을 위해 총 결기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암이 목포시와 인접,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고 상호유에 입주해 있는 상호중공업 마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암=김한기기자 hnkim@

나주 공직사회 평가르기



정철현 (사회2부 나주주재)

시청 내부 비리 및 갈등을 보고 싶다면 마저 ‘이전투구(泥田鬪狗)’ 앙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같은 일부 지역 인사와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서 염증마저 느끼고 있다. 시청 내에서도 냉소적인 일부 공무원들은 ‘나주는 2명의 시장을 뽑아야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입장이며 또 다른 공무원들은 특정인에게 줄서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혼란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대규모 인사가 실시된다. 신 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직원들의 공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따른 고소·고발과 핵심 간부 구속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 실시되는 이번 인사는 가뜩이나 흥분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는가.

원내감염예방 선두기업-다물바이오텍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 개시!

1년에 한번쯤 귀중한 내집의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기회가 왔습니다.

연론에 보도된 것처럼 병원에서 病이 감염되어 연 15,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07년 2월 3일 1면 보도) 그 만큼 감염을 예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4월 이면 귀하의 사업장이 무균, 무취의 코린환경이 됩니다. 이번 렌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치 장소 세균이 노출되어 있는 소아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수술실, 중환자실, 식품공장, 식당, 사무실, 구급차의 세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이산화염소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증

기관	인증내용
JFCFA (유엔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	ADI(인체상위허용기준) A 클래스 인증
FDA (미국 식품의약국)	식품첨가물, 의료용소독, 의료기기소독 사용허가
EPA (미국 환경보호청)	음료수, 환경정화, 공장폐기물처리 사용허가
USDA (미국 농무성)	식품, 식육소독 사용허가
FSIS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식품, 식육소독 사용허가
NASA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왕복선내부 및 우주선의 완전결균에 채용
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식품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소독에 공식 채용
EFSA (유럽식품안전청)	음용수의 소독, 식품첨가물
MOHLW (일본후생노동성)	음료수의 소독, 소매부의 표백, 수영장, 목욕탕 수처리소독 일반항균, 소독에 사용허가
KFD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에 대한 살균소독, 식품첨가물

★ 병원, 산후조리원 무료로 렌탈해드립니다.(4일간) ※ 안정화 이산화염소의 성능은 세균과 냄새를 동시에 제거합니다.

렌탈 대여가격
1일(24시간)사용시
20-30평(실평수) - 25,000원
30-40평(실평수) - 35,000원

(주)다물바이오텍 전남·북총판 | (062) 531-2811 | 011-9616-5258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51-17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용 등 다량구비)
 -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광주 최초 일본 구제 멀티샵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Nippon Style

◎희망의 품격
◎부담없는 가격
◎편안한 쇼핑

스파이더맨 | 파워레인저 | 유켄도 | 프린세스 | 슈가룬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